

여수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만 75세 이상 3900명 대상 2025년까지 27억2천만원 투입 방문보건·장기요양·생활지원·주거 등 5개 분야 15개 사업

전남에서 유일하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여수시가 오는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올해 7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2년 6개월간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보건부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신청한 가운데 여수와 광주시 서구·북구 등을 포함한 12개 시·군·구가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13억6000만원(50%)과 도비 4억8000만원(15%), 시비 9억5200만원(35%) 등 27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 연말까지는 국비 2억8000만원을 포함한 5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

여수시는 공모 신청에 앞서 사회복지과 안에 '통합돌봄팀'을 지난 1월 신설하고,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계획'을 세웠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에는 한 달여 동안 만 75세 이상 우선 관리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였다.

여수시는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지난달 11일 제정하며 법적 지원

원 기반을 다졌다.

'섬까지 섬세한 여수형 노인 의료·돌봄사업'으로 이름 지은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 시민 39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노인 맞춤 돌봄 중점군 등 1만5600명의 4명 중 1명 비중(25%)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여수시는 오는 2025년까지 '방문 보건' '장기요양' '생활지원' '주거' '지자체 특화'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여수시는 의료·돌봄·주거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지역케어위원회를 만들어 월 2회에 걸쳐 사업지원 대상자를 심의·승인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종합상담구를 '통합지원장구'로 확대 운영한다.

여수시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섬세한 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이미용·주거 지원 등을 아우르는 '섬까지 섬세한 섬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가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케어안심 '중간집')을 지원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실시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안전사업도 진행한다.

한편 여수시는 퇴원 환자의 복귀를 돕는 3개 사업 5개 분야 사업을 수행할 기관 4곳을 오는 9월까지 모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의료요

양 돌봄연계 전담반과 연계한 협력체제도 가동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여수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여수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폭염 대응 종합대책 9월 30일까지 무더위 쉼터 등

보성군이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재난 안전·복지 부서와 12개 읍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 관내 410개소의 무더위 쉼터 내 방방시설 작동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연계 추진하고 폭염 대비 군민 행동 요령 안내, 부채, 쿨 토시, 쿨 스카프 등 폭염 피해 저감 홍보물도 배부중이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방문보건인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체크와 안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보성읍, 벌교읍 전통시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살수차 2대를 운행한다.

지역 내 횡단보도 등에도 폭염 그늘막(스마트그늘막) 13개소를 설치했고, 폭염 특보 시 야외 활동 자제 안내 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등 다양한 피해방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물을 자주 마시고 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승백 기자 kyb@

순천에 전남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

조곡동에 공공 진료소·실내 놀이터·간식 만들기 체험·사진관 등 갖춰

전남 지역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순천에 문을 열었다.

순천시는 조곡동(역전길 50) 일원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최근 개관했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부지 3104㎡에 건축연면적 2689㎡의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 2021년 3월 착공해 2년 2개월간 공사를 마무리했다. 건립에는 국비 12억원과 도비 28억원, 시비 63억6100만원 등 103억6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센터 운영 예산은 3억6300만원이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내건 순천시는 올바른 반려문화화를 만들기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센터에는 유기동물 등을 돌보기 위한 공공 진료소(동물병원)와 반려동물 실내 놀이터, 미용·간식 만들기 등 체험학습실, 교육실, 영양교육실, 입양 상담실, 직접 촬영 사진관 등을 갖췄다.

이곳에는 수의사 1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추석 명절을 빼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설 이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실내 놀이터 이용료는 1명당 3000원(반려동물 1마리 5000원)이며, 애견 샤워실은 시간당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순천시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설을 무료로 임시 운영해보니 반려동물 예절교실 수업은 34명



전남 첫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순천시 조곡동에 최근 문을 열었다. 센터 전경. <순천시 제공>

(38마리)가 들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 산책교실' (20명), 수제간식만들기(22명), 기초미용배우기(30명) 등이 참여했다.

센터 개관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김성홍 정암대학교 총장,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 주민, 반려인 등이 참석했다.

풍덕초교 너른들합창단이 동물을 주제로 한 동요 합창으로 무대를 열었고, 참석자들은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려인으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워 반려동물과 마음 놓고 뛰놀고 동반입장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야외 부지 공간을 확충해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감하는 '펫마켓'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관객 매료시킨 고흥 '녹동항 드론쇼'

관람객 5만 돌파...8월 '박치기왕 김일' 등 주제

고흥군의 야간 관광특화 상품인 '녹동항 드론쇼 공연' (사진)이 누적 관람객 5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 5월13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드론 500대 규모로 다양한 주제와 연출로 펼쳐지는 전남 최초 상설 드론 군집비행 공연이다.

드론쇼가 시작되기 전부터 녹동 바다정원에는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등 녹동항의 색다른 밤풍경을 느낄 수 있다.

긴 장마철 우천 등으로 몇 차례 공연 취소에도 공연 9회차 만에 누적 관람객 5만여 명을 달

성, 관광자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8월 휴가 성수기를 맞아 고흥의 매력을 더하고, 추억과 감성이 가득한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색다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8월 드론쇼 공연은 '고흥 바캉스', '공룡 탐험', '별자리 여행', '박치기왕 김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공연 안내는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2023 고흥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화엄사 모기장 영화 음악회. 지난 5일 오후 '2023 화엄사 모기장 영화 음악회'가 열린 화엄사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방문객 500여 명이 모기장 안에서 영화를 즐기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국가농업유산' 보성 차 체험 인기몰이

4~7월 10개 학교 1600여명 참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보성 차(茶)'를 체험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보성군은 10개 다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성 차 체험'에 올해 4~7월 넉 달간

10개 학교 165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17개교 1790명의 지역 유치원·초·중·고교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11호로 등재된 '보성 전통차 농업 체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차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차 체험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보성교육지원청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돼왔다. 참가 학생들은 다도·제다 교육, 녹차 조물릿 만들기, 녹차 치약 만들기, 떡차 만들기, 녹차 시루떡 만들기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지역 유산으로 지켜야 할 보성 전통 차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보성=김승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관계자들이 드론으로 수목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박람회 수목 관리하는 '순천 드론'

오천그린광장 500여 그루 도시숲 예찰·방제 등

순천시가 최근 폭우와 이어진 장마로 병해충이 급증하고 있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요 무대인 오천그린광장 식재 수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순천시는 오천그린광장 내 수목이 규격이 크고 집단화 돼 있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드론으로 수목 생육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오천그린광장은 팽나무와 낙우송 등과 함께 마로니에 나무 5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숲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오천그린광장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대형 팽나무들은 이식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판단돼, 수목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생육 증진을 위한 영양제 투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순천시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오천그린광장은 마로니에 숲과 대형수목들이 어성길, 잔디밭과 어울려 시민들이 많이 찾고 사랑하는 공간이다"며 "식재된 수목 한 그루, 한 그루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수목의 세력 저하를 최소화하고자 내병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